

월 1만원 후원하면 연 1만명 군불자 늘어요

조계종 군종특별교구 '군포교비전21' 발표... '만인동참' 운동 등 전개

조계종 군종특별교구(주지 일연·이하 군종교구)가 군포교 재정마련을 위한 '만인동참' 운동을 전개하는 등 다양한 사업을 전개한다.

이를 위해 군종교구는 11월 30일 열린 제37주년 '군승의 날' 기념법회에서 군포교 발전 청사진을 담은 '군포교 비전 21'을 발표했다.

'군포교 비전 21'은 ▲군 포교 자체 역량 강화 ▲전불교적 지원 시스템 확충 ▲조직적인 군 포교 시스템 확립 ▲계층별 군불자 관리시스템 도입 ▲군승활동 관리체계 확립 ▲포교 성과의 범불교적 확산 등을 내용으로 담고 있다.

군종교구가 가장 역점을 두는 새해 사업은 이웃종단과 비구니 스님의 군승 파견. 군종교구는 빠른 시일 내에 이를 성사시키기 위해 국방부 및 이웃종단과의 지속적인 협력을 강화한다. 특히 이웃종단 군승파견

검토를 위한 종단협의체 구성에도 박차를 가할 생각이다.

군포교 후원체제도 강화된다. 군종교구는 예비역 군법사를 중심으로 '군승 미배치법당 지원팀'을 만들고 이들을 중심으로 군승이 배치되지 않은 260여 곳 군법당의 법회를 운영한다. 또한 후원 사찰과 포교사 결연사업도 범불교적으로 확대된다.

군포교 재정확보를 위해서는 매월 1만원씩 후원하는 '만인동참' 운동이 적극 전개된다. 군종교구는 이를 통해 매달 1억 원씩 총 12억 원 이상의 군포교 예산을 확보할 계획이다.

계층별 군불자 관리시스템도 도입된다. 군종교구는 장군 불자, 영관급 불자, 부사관 불자 조직을 통합 관리해 국군불교홍신도회 조직을 대폭 확대한다. 이를 통해 입체적인

불자 연결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보직변경, 타부대 전출시에도 지속적으로 관리해 군 신도회 조직을 강화한다.

군승들에 대해서는 포교 인센티브제도도 도입된다. 군종교구는 군승들에 대한 보수교육과 신세대 장병포교 효율화를 위한 연수교육 등을 실시하고 포교성과에 따라 인센티브를 부여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군종교구는 현재 16만 명 수준인 군불자수를 매년 1만 명씩 늘려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군종교구는 군승후보생에 대한 입대 전 교육체계도 새롭게 정비한다.

또한 군종교구는 최근 군포교 전략 마련을 위해 자문위원단과 상임위원회를 구성했다. 자문위원단은 총책과 포교전략, 교육, 대외협력, 수익사업에 대한 전략 등을 개발하는 역할을 맡으며 상임위원회는 군



제2 도악을 다짐하는 '군불심(軍佛心)'. 11월30일 열린 제 37주년 군승의 날 기념법회에는 700여 사부대중이 동참했다.

종교구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중책을 맡는다. 또한 군포교 전담연구원을 확보해 '군포교연구실'도 설치, 운영된다.

군종교구 주지 일연 스님은 "타종교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환경

에서 포교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군법사 등 군포교 담당자들이 뼈를 깎는 노력을 해야 한다"며 "범불교적으로 힘을 모으기 위해 이웃종단 군승파견 등을 빠른 시일 내에 성사 시키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종교구는 11월 30일 군승의 날 기념법회에서 7군단 군종참모 경연수 법사에게 총무원장상을, 육군훈련소 박동진 법사와 공군교육사 영부 박대용 법사에게 포교원장상을 수여했다. 글·사진=강유신 기자

"한·대만 불교 교류 활성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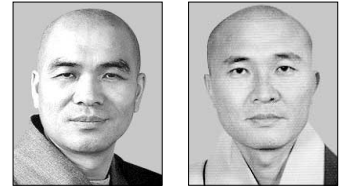
리자이팡 대표 기관스님 예방

리자이팡(李在方) 주한 대만대표부 대표가 11월 29일 조계종 총무원장 기관스님을 예방해 양국 불교 교류 방안을 논의했다. 리자이팡 대표는 "바쁜 일정이 지나면 제일 먼저 대만을 방문해 줄 것"을 요청했다.

기관스님은 "대만 불광산사는 사회사업 뿐 아니라 수행 등에서 뛰어난 활동을 펼쳐 마음으로 늘 선망했다"며 "대만 방문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남동우 기자

조계종 교육부장에 법장 스님

총장 스님 등 총책특보 임명



법장 스님 (왼쪽) 현종 스님 (오른쪽)

조계종 교육위원은 12월 1일 새 교육부장에 법장, 불학연구소장에 현종, 교육국장에게 현종, 연수국장에게 법상, 불학연구소 사무국장에게 명언 스님을 각각 임명했다.

한편 총무원장 기관스님은 1일 총책특보에 중앙총회의원 법경, 법민, 성직, 원담, 토진, 윤달 스님과 구례 화엄사 주지 총삼 스님을 각각 임명했다. 또 호법부 상임감찰에 해만 스님을 임명했다. 남동우 기자

10·27 법난 진상규명 '노력'

대책위 중단지원 요청

조계종 10·27법난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 추진위원회는 11월 30일 조계종 총무원장 기관스님을 예방해 중단 지원의 지원을 요청했다.

이 자리에서 삼보 스님(당시 상원사 주지)은 "사무실이 없어 10·27 법난 백서 등을 발간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니 역사기념관이나 조계사 부속 건물에 추진위 사무실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 남동우 기자

내년 예산 1억8천 의결

미륵종 중앙총회 개최

미륵종(총무원장 송정) 정기 중앙총회가 11월 28일 김해 관음정사에서 19명의 총회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미륵종은 이날 2006년도 예산안 1억 8천여만원을 의결하고 종단기구 개편, 창종기념행사 개최, 2006년 해외성지순례 일정 등에 대해 논의했다. 강유신 기자

조계종 국립공원입장료 폐지 요청 배경과 전망

조계종 총무원장 기관스님이 노무현 대통령과 이재용 환경부장관에게 잇달아 국립공원입장료 폐지를 요청하면서 그 배경과 후속 조치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합동정수 따른 민원 해소
조계종은 먼저 국립공원입장료 및 문화재관람료 합동정수와 관련된 각종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국립공원입장

료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2000년 참여연대가 국립공원 지리산 천은사와 설악산 신희사에 대해 문화재관람료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등 합동정수에 대한 국민여론이 악화돼 왔기 때문이다.

▲체계적 공원관리 가능
조계종은 또 국립공원입장료를 문화재관람료 정수액 또한 약 30%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이를 감소하더라도 국민의 이해와 요구, 자연·문화유산의 효율적 보존을 위해 문화재관람료 정수방법, 정수위치 등 합리적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와관련 환경부도 입장료 폐지를 찬성하고 있고, 기획예산처에서도 올해 실제 이를 검토했지만 폐지에 따른 예산확보 문제와 '이용자 부담원칙'을 내세우며 난색을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립공원관리공단측은 "입장료 폐지에 따른 추가 비용을 정부에서 보조해준다는 전제하에 입장료

폐지하면 자연문화유산 보존을 보다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즉 국립공원관리공단 직원들이 성수기 대부분을 매표업무에 매달리고 있는 현실에서 '국립공원관리공단'을 '국가공원청'으로 승격시키면,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공원을 관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대국민 서비스 또한 향상시킬 수 있다는 얘기다.

또 국가가 국립공원을 지정·관리하는 만큼 국가에서 입장료 수입액 약 240억원을 부담하는 것이 원리 지정취지를 살리는 것이라고

보고 있다. 따라서 조계종은 입장료 수입액을 국가재정으로 부담하고 효율적 관리방안을 도모한다면, 국립공원 가치를 증대할 뿐 아니라 국민의 삶의 질 또한 높일 수 있다고 전망한다.

▲체계적 공원관리 가능
조계종은 또 국립공원입장료를 문화재관람료 정수액 또한 약 30%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이를 감소하더라도 국민의 이해와 요구, 자연·문화유산의 효율적 보존을 위해 문화재관람료 정수방법, 정수위치 등 합리적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와관련 환경부도 입장료 폐지를 찬성하고 있고, 기획예산처에서도 올해 실제 이를 검토했지만 폐지에 따른 예산확보 문제와 '이용자 부담원칙'을 내세우며 난색을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립공원관리공단측은 "입장료 폐지에 따른 추가 비용을 정부에서 보조해준다는 전제하에 입장료

자연·문화유산 효율적 보존위한 조치

조계종 관람료 수입 30% 감소...대안 마련

정부 "이용자 부담 원칙"내세우며 난색

조계종은 먼저 국립공원입장료 및 문화재관람료 합동정수와 관련된 각종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국립공원입장료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2000년 참여연대가 국립공원 지리산 천은사와 설악산 신희사에 대해 문화재관람료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등 합동정수에 대한 국민여론이 악화돼 왔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조계종은 국립공원이 이미 연간 2천만 명 이상 방문하는 국민휴양지이기 때문에 '이용자 부담원칙'을 적용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입장이다.

또 국가가 국립공원을 지정·관리하는 만큼 국가에서 입장료 수입액 약 240억원을 부담하는 것이 원리 지정취지를 살리는 것이라고

보고 있다. 따라서 조계종은 입장료 수입액을 국가재정으로 부담하고 효율적 관리방안을 도모한다면, 국립공원 가치를 증대할 뿐 아니라 국민의 삶의 질 또한 높일 수 있다고 전망한다.

▲체계적 공원관리 가능
조계종은 또 국립공원입장료를 문화재관람료 정수액 또한 약 30%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이를 감소하더라도 국민의 이해와 요구, 자연·문화유산의 효율적 보존을 위해 문화재관람료 정수방법, 정수위치 등 합리적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와관련 환경부도 입장료 폐지를 찬성하고 있고, 기획예산처에서도 올해 실제 이를 검토했지만 폐지에 따른 예산확보 문제와 '이용자 부담원칙'을 내세우며 난색을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립공원관리공단측은 "입장료 폐지에 따른 추가 비용을 정부에서 보조해준다는 전제하에 입장료

태고총림 방장 혜초 스님 취임

중앙올원장 수진·강원장 금용스님 등 임명

태고종 종정 혜초 스님이 태고총림 순천 선암사 방장으로 추대됐다.

태고종은 11월 30일 태고총림 선암사 대웅전에서 1000여 명이 동참한 가운데 태고총림 선암사 방장 혜초 스님 추대법회를 병행했다. (혜초 스님 법문 24~25분)

태고종은 이날 총림 인사도 단행했다. 선암사 중앙올원장에 수진(담양 용화사 주지, 해동울맥 제 11대 울사), 불교전문강원장에 금용(선암

사 주지), 정수원장에 승조(선암사 부주지), 종정에경실장에 상명(前 선암사 주지) 스님이 임명됐다. 중앙선원장 지하(前 선암사 주지) 스님은 유임됐다.

수진 스님은 1969년 지광 스님을 은사로 출가했으며, 목담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와 비구, 보살계를 수지했다. 금용 스님은 55년 석운 스님을 은사로 득도한 뒤 광주 전남 종회의장 등을 역임했다. 김원우 기자

덕암 스님 부도탑 제막

선암사 부도전에 봉안



태고종은 11월 30일 종정 혜초 스님을 비롯 원로회의 의장 일우 스님 등 1000여명이 동참한 가운데 선암사 부도전에서 덕암당 흥덕대종사 열반 2주기 추모기념 부도탑 제막식을 병행했다(사진). 이날 제막된 부도탑은 북한산 태고사 태고보우 국사 부도(보물 제749호)와 같은 형태, 같은 크기(높이 4m)로 조성했다. 글·사진/선암사=김원우 기자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장 : 노대행 발행·편집인 : 김광삼 인쇄인 : 채수삼

110-030 서울특별시 중로구 청운동 54번지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34-55 인터넷 실시간 현대불교 www.buddhanews.com
 FAX (02)737-0698 불교포털 부디피아 www.budhopia.com
 광고국 (02)2004-8213-6 불교쇼핑 마하몰 www.mahamall.co.kr
 FAX (02)737-0697 온라인서점 예시마론 www.yosiamun.com

구독신청·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1개월 5천원·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 15일 창간 등록번호: 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황우석 박사님!

당신을 세계난치병환자의
등불이며 우리의 영웅입니다.
우리는 당신을 희망이라 부릅니다.

부산불교사회복지기관협의회

회장 혜총스님
 기획실장 박용하
 사무국장 이춘성
 간사 김영곤, 서은해

- 개금사회복지관 : 관장 해문스님
- 금정구종합사회복지관 : 관장 정영스님
- 낙동종합사회복지관 : 관장 임광수
- 물운대종합사회복지관 : 관장 정현스님
- 부산시청소년원 : 소장 지장스님
- 사회복지법인 보현도량 : 이사장 정영스님
- 사단법인 선양복지원 : 이사장 김수현
- 사회복지시설 겸넌하우스 : 원장 윤숙자
- 양정청소년수련관 : 관장 법산스님
- 용호종합사회복지관 : 관장 혜총스님
- 합치골청소년수련관 : 관장 지일스님
- 공창종합사회복지관 : 관장 명현스님
- 금정청소년수련관 : 관장 정만스님
- 두송종합사회복지관 : 관장 지현스님
- 부산보현의 집 : 원장 이기표
- 부산서부노인학대예방센터 : 소장 김영곤
- 사회복지법인 해원 : 이사장 원희스님
- 상락저배산실버빌 : 원장 박용하
- 양정재가노인복지센터 : 관장 혜총스님
- 영주암어린이집 : 원장 법산스님
- 화명종합사회복지회관 : 관장 유정스님